

#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국회토론회

## 광주시-조오섭 의원실 공동 주최

### 철도건설 패러다임 전환 등 제안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과 관련, 수도권 집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서축 개발과 철도건설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달빛내륙 철도건설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 이어 조오섭 의원을 좌장으로 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 박사는 발제를 통해 수도권 집중구조 분산을 위해서는 지

역발전을 통한 신경계권 형성, 지역 간 균형 있는 철도서비스 확대, 신국토개발을 위한 동서축 개발 등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수도권 지방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영·호남 중심의 남북경제권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선수요, 후공급'의 철도건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상생 방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광주와 대구 사이 203.7km 구간을 1시



광주시와 조오섭 국회의원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광주시 제공)

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했다.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됐다.

광주시와 대구시 등 내륙철도 경유 지자체는 지난 2017년 7월 달빛철도건설 추진 협의회를 출범하고 지

난해 3월 '달빛철도 경유지 지자체장 협의회'를 꾸렸으며 국토부가 지난달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광주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신규 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조인호 기자

## 씨젠의료재단, 광주에 감염병 검사센터 구축

전문의 5명·검사인력 25명 상주 9월 이후 하루 1만건 이상 검사



이윤섭 광주시장과 천종기 씨젠의료재단 이사장이 29일 광주시청에서 호남감사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질병검사 전문기관인 씨젠의료재단이 광주에 검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호남권 감염병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씨젠의료재단과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씨젠의료재단은 남구 행암동에 설치 중인 광주호남 검사센터를 통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관련 검사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호남검사센터는 2150㎡ 규모로 전문의 5명, 검사인력 25명 등 임직원 58명이 상주하면서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에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사 소요 시간은 6시간 이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인허가 등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9월 이후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하루 1만 건 이상의 검체 검사가 가능하다. 씨젠의 지역 검사센터는 부산과 대구에 이어 광주가 세 번째다.

광주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제외한 민간수탁 검사기관이 주로 수

도관에 있어 지역 내 환자 급증시 검사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할 경우 6시간 가량, 수도권 민간수탁 기관에 의뢰하면 12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1990년에 설립된 씨젠의료재단은 임직원 800명으로 현재 하루 평균 2만명의 검체 검사가 가능하고 전국 9개 권역, 7개 지역본부, 67개 지점으로 전문화된 운송·물류 시스템을 갖췄다.

천종기 씨젠의료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있는 광주시민을 응원하면서 분자진단분야 전문 검사기관으로서 광주지역 감염병 조기 발견과 대응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전남도,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전남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남도는 29일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지방소멸지역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중인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범국가적 지원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행정정책학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토론회에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관계 전문가, 시·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정토론의 사회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대행이 맡았으며, 전남·북, 경북, 충남 등 지역 전문가와 법률·보건복지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46%인 105곳이, 전남의 경우 22개 지자체 중 82%인 18곳이 포함돼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인구유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감소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고착화된 인프라사업이 아닌 소멸위기지역의 활력 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통해 농어촌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 고향 사랑세 도입,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 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특별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다음 달 18일 국회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북도 등 타 시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공조해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년단118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망자: 조귀환 (461228 - 1665818)  
최후주소: 전남 진도군 의신면 첨계길 17-5(첨계리)

위 망 조귀환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제2항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할.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7월 30일

공고인: 김금자, 조재현, 조민하, 조유미  
주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8리길 12  
한정승인수리일: 2020년 7월 23일  
공고기간: 2020. 7. 30 ~ 2020. 9. 30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여! 늦게서 재안한 슬로건입니다.

## 동구 학운동, 자연마을 뿌리 찾기 사업 추진

광주 동구 학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진)는 '무꽃동 마을사랑채'에서 매주 정기모임을 갖고 '자연마을 뿌리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도 동구 마을공동체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학운동 자연마을의 유래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먼저 지난 6월 구술자료와 문헌자료 수집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학운동은 총 9개의 자연마을이 있으며 올해는 △속실 △동산 △성촌 △신림 등 4개 마을에 대한 뿌리 찾기 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서구-SK텔레콤, 누구(NUGU)케어콜 업무협약

광주 서구가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누구(NUGU)케어콜 솔루션을 제공받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서구청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서대석 서구청장과 이현아 SK텔레콤 AI서비스담당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서구는 코로나 19 능동감시, 음성관정 대상자 약 1,300명을 대상으로 누구(NUGU)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남구, 불법 광고물 대행업체 · 광고주 "꼼짝마"

광주 남구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야간 시간대와 현수막을 떼고 붙이는 게릴라 방식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광고물을 내거는 광고물 대행업체와 광고주를 대상으로 전면전에 나선다.

남구는 29일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로 모두가 합쳐온 시기에 이윤 창출을 위해 삼습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광고 대행업체와 광고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계를 위해 현수막을 내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 북구, 문화예술인 창작 상생페스타 참가자 모집

광주 북구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역활동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9월과 11월에 열린 '2020 북구 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페스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음악공연, 미술 작품 전시, 공예·풍선아트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참가분야는 단체공연, 개인공연, 미술, 체험 등 4개 분야이며 참가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31일까지 문화예술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광산구, 행복시책 보고회 언택트 화상회의로

광주 광산구가 29일 구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언택트 화상회의로 '행복시책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산구는 민선7기 하반기 구성 최고가치인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국별·부서별 총 74건의 행복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행복시책으로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세상에 없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영구인대아파트 늘 행복 프로젝트', 니트족 청년들의 사회화를 지원하는 '단단한 청년, 든든한 광산 행복프로젝트',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골목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골목상권 정보서비스', 안전 빅 데이터 분석으로 CCTV 등의 최적화 지를 찾는 '과학적인 안전시설물 입지분석 지원' 등이다.

임형택 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연도	보험료 납부액	건강보험 혜택액	배율
2011년	240,833원	417,111원	1.74배
2012년	125,531원	217,111원	1.74배
2013년	79,147원	138,111원	1.74배
2014년	48,103원	84,111원	1.74배
2015년	26,697원	46,111원	1.74배
2016년	104,062원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